

경기도, '대북전단 금지법' 환영... '개성공단 재개'도 촉구

2020-12-03 15:18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경기도 성명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이재명 "이제는 개성공단 재가동 얘기도堂堂하게 해야"
 이재강,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하며 20일 넘게 1인 시위 중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 "대북전단 금지법, 상호 신뢰회복 위한 소중한 첫걸음"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는 전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이라면서 "이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개성공단 재개 선언'도 시급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이와 함께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월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제는 개성공단 재가동 얘기도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도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유엔사의 월권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천막 집무실을 설치했다. 또 통일대교 남단에서 1인 시위도 2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 입주 주방기기 업체가 '통일냄비'를 첫 출하한 2004년 12월 15일을 기념해

오는 15일 임진각에서 통일대교를 넘어 도라전망대까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한 3보 1배를 계획하고 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5458774>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